



진화를 거듭하는 디지털 컬러 인쇄기 VDP 활용은 기본이고 오프셋 영역까지 넘본다

미국의 인쇄산업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디지털 인쇄의 약진은 무시하기 어려운 현상이 됐다. 물론 아직도 오프셋 인쇄를 고집하는 업체도 있지만, 디지털 출력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이미 거대한 트렌드의 하나로 여겨질 만큼 일반화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프셋 장비에 디지털 장치나 장비를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인쇄사로의 변화를 꾀하는 업체도 많이 늘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NAPL(National Association for Print Leadership; 미국의 인쇄 리더십협회)의 디지털 서비스 연구에 따르면, 약 95%의 응답자가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가변데이터는 물론이고 고정데이터를 인쇄할 때도 디지털 인쇄를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서비스와 공급 비용의 감소에 따라 일부 흑백 작업이 필요한 작업에서도 컬러 디지털 장비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결과도 도출됐다.

디지털 매력 증가 유통 수명은 단축

디지털 컬러 인쇄는 도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속도, 품질, 신뢰

성, 개별 특장의 면에서 모두 괄목하고 만족할 만한 성능 업그레이드를 이뤄왔다. 빠르게 진행되는 이러한 성능 향상은 선택의 순간을 매력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폭도 크게 다양화했다. 반면에 디지털 인쇄기의 유통 수명은 심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

래리 헌츠 컬러 카피 뉴스의 덕 홀서 발행인은 “이러한 변화는 인쇄 산업에서 자본장비를 더욱 자주 업그레이드하도록 요구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서 “만약 몇 년 전에 디지털 인쇄기를 도입했다면, 아마도 도입할 당시에는 그 장비를 10~15년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매 4~5년마다 디지털 인쇄기를 대체해야 하는 요구를 받



인쇄 능력의 업그레이드는 디지털 컬러 인쇄기의 확산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며, 소량인쇄와 빠른 작업전환은 또 다른 특징이다.

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인쇄사들이 벌써 제3, 제4, 제5 세대의 디지털 인쇄기를 활용하고 있다. 분당 40~50장의 속도였던 기계들이 분당 60~70장을 인쇄하는 새로운 기계들로 대체되고 있다. 인쇄사는 벌써 기존의 인쇄기 대비 빠른 기계를 통해 이러한 속도의 요구에 대응해 나가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업 능력 향상 · 소량 인쇄 및 빠른 작업전환 양대축

인쇄 능력의 업그레이드는 디지털 컬러 인쇄기의 확산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며, 소량인쇄와 빠른 작업전환은 또 다른 특징이다. 디노 패그리아렐로 코니카미놀타 비즈니스 솔루션 USA의 제품 마케팅 이사는 "효율성을 향상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보다 많은 인쇄사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소량 작업을 할 경우 전통적인 오프셋 작업으로는 이익을 얻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있다. 반면에 컬러 디지털 인쇄기는 소량인쇄와 가변데이터 인쇄에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상업용 인쇄사는 고객이 요구하는 빠른 작업시간과 상응하는 높은 품질 속에 소량인쇄를 실현함으로써 매우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디지털 컬러 인쇄기의 작업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관련해 출시는 "많은 인쇄사들은 현재 인쇄실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하이엔드 기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증언했다.

선택 앞서 예산·품질·작업량 점검

디지털 인쇄 분야 전문가이자 작가인 아티 모스크워츠는 디지털 컬러 인쇄기를 구매하기에 앞서 살펴봐야 할 주요 점검 포인트에 대해 강조했다. 기존 시설을 늘릴 것인지, 업그레이드할 것인지 아니면 대체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필요 품질, 평균 월 작업량, 속도, A/S 및 유지보수 등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장에는 매우 많은 인쇄기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확한 분석과 요구 없이 최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경험 많은 영업사원이 좋은 결정을 도울 수는 있지만 대체로 자기가 공급하는 라인에 치우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컬러 인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 조건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업 특성 파악이 최우선 조건

영국 아일랜드 지역에 위치한 프린터스의 그래엄 피어스 사장은 "우리는 평판 오프셋 인쇄기를 비롯한 몇몇 디지털 장비 옆에서 가동되는 제록스700을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하기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작업 물량은 대체로 약 2500매에 달하는 하이델베르크의 작업 범위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모든 디지털 기계와도 부합한다. 특히 흑백 작업에 경제성이 있는 평판 인쇄기적인 특성을 보유한 기계의 구매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샌디에이고 지역에 위치한 소렌토 메사 프린팅의 소코트 카펠 사장은 "크레올을 장착한 2대의 코니카미놀타를 통해 꾸준히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생산 능력과 작업성을 향상하기 위해 크레올이 장착된 코니카미놀타8000을 추가했다"면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맞춰 서비스할 수 있는 상기한 3대를 통해 인쇄 서비스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모든 상업용 오프셋 작업과 프리프레스 작업 역시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살리나스 지역에 위치한 익스프레스 프린팅의 알버트 말도나도 사장은 약 1년 전 코니카미놀타8000을 설치했다. 그는 "오프셋 인쇄기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소량 작업을 담당하기 위해 새 제품을 추가한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리스 지역에 위치한 마키텍트의 휴 그리핀 사장은 "최근 아이젠3를 제록스1000으로 바꿨다"면서 "우리는 전체 56개의 인쇄기 중에서 7대를 디지털 장비로 구축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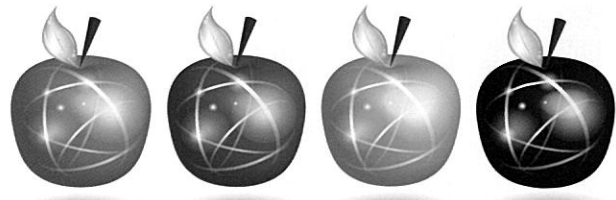
이러한 사례는 도입 업체가 일반적으로 현재 작업 현황과 성격에 맞춰 디지털 인쇄 장비를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오프셋 작업의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디지털 컬러 인쇄기의 지속적인 진화 확실히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서머빌 고등학교의 찰스 게를라흐 그래픽 부서 담당 교사는 디지털과 오프셋의 융합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우리 학교의 그래픽 부서는 2색 AB덕 9985 트윈타워 오프셋 인쇄기와 코니카미놀타 흑백 디지털 복사기 비즈허브 프로 920 및 비즈허브 프로 950과 캐논 500을 보유하고 있다”며 “캐논 C7000과 저렴한 고객 컬러 잉크젯 장비인 리소콤포컬러 7050을 추가할 계획이다. 콤포컬러는 보다 적은 손실로 컬러 표지와 본문의 책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미국 보스턴 지역에 위치한 랜드마크 임프레션의 다나 윌슨은 코니카미놀타 6500을 캐논 7010VP로 교체했다. 그는 “이미 6500매의 매우 많은 양을 작업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작업은 DI 인쇄기에서 캐논으로 전환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DI를 퇴출시킬 계획은 없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마시드-M&M 그룹의 지오바니 자라밀로는 “빠른 납기와 소량을 원하는 작업 수요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코니카미놀타의 비즈허브 8000c 디지털 인쇄기를 구매했다”면서 “동시에 금은박, 다이커팅, 엠보싱 등의 작업이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윈드밀 레터프레스를 추가해 오프셋 인쇄와 디지털 작업을 융합했다. 이로써 경쟁력 있는 가격에 금은박,



DIGITAL

가변데이터 활용, 다이커팅 등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아직까지는 디지털 작업이 대량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아 여기에는 오프셋 인쇄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컬러매니지먼트 장비 제조사인 텍콘의 라이언 테스타 글로벌 영업 매니저는 “디지털 인쇄기가 오프셋 비즈니스의 성장을 돕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인쇄 관련 마케팅 풀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에게는 더욱 유리할 것이다. 디지털 DM 작업이나 40인치 대량 작업 모두에 좋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컬러 인쇄기는 분명히 진화했으며, 앞으로 제록스, 캐논, 리코, 코니카미놀타, HP인디고 등의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디지털 컬러 인쇄기의 지속적인 진화는 확실히된다. ↻



디지털 컬러 인쇄기는 분명히 진화했으며, 앞으로 제록스, 캐논, 리코, 코니카미놀타, HP인디고 등의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